작은 새가 놀러 오는 것 같은 그림 같은 집이에요. 로만토피아는 아담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다락방에는 빨간머리 앤이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복층 독채입니다. 앞마당에서는 다양한 허브와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아름다운 꽃들이 맞아주고 있답니다. 이 숙소에서는 손님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바라는 제 마음이 느껴지실 거예요. 편안한 라탄 의자에 앉아 창 밖으로 내다보이는 아름다운 정원을 바라보면 집 안에서 은은한 나무 향기를 맡을 수 있어서 심호흡이 절로 나오게 될 거랍니다. 조리 시설은 제한되어 있지만 여분의 수저나 상비약, 유기농 어메니티 등을 구석구석 세심하게 준비해 두었어요. 작은 냉장고와 세탁기도 귀여운 모습으로 구비되어 있어서, 연박에도 불편함이 없을 거예요. 마치 동화 속에 머무르는 듯한 기분이 드는 이런 숙소에서 몸과 마음을 편히 쉴 수 있는 힐링을 경험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제주도에서 가장 조용하고 한적한 마을인 가시리에서 유기견인 라나와 코난과 함께 로만토피아를 꾸려가고 있어요. 사시사철 꽃이 피는 아름다운 정원과 유기농으로 가꾸는 감귤밭 너머로 탁트인 전망을 볼 수 있답니다. 친환경 목조주택으로 지어진 로만토피아는 촉감 좋은 면 침구만을 사용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저귀는 새소리와 함께 나무향기가 쾌적한 실내환경을 경험하고 숙면을 취할 수 있답니다.”

로만토피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중산간동로 5220번길 3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2314

숙소의 특별한 점

• 유기농 감귤밭과 정원으로 탁트인 전망

• 친환경 목조주택으로 원목과 인체에 좋은 자재 사용

• 자연환경이 잘 보존 되어있는 조용하고 한적한 가시리 마을

이런 여행객에게 추천

• 목조주택안에서 보이는 탁트인 전망을 경험하고 싶은 분

• 가시리 마을이 주는 한적한 여유를 느끼고 싶은 분

알아두면 좋은 사항

• 실내 취사 금지인 대신 주인분이 건강한 재료로 직접 만들어주시는 유료조식을 신청 할 수 있어요.